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사45:1-7

민18:5 에 보면 레위인이 성소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제사장들이 제단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이 언약의 피 제만 지속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진노 없다는 말씀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은 이 일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하셨고 성소와 제단의 직무에 전념하여 백성들을 나의 진노에서 지켜라 -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제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 하고 첫 한 해 동안에 공식적으로 그들이 한 일은 성막을 만드는 것이었고 다음해 첫째 달 초하루에 완성하여 성막을 세웠습니다(출40:7)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언약의 피 제사를 지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진노하시지 않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올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배 기도 말씀과 그 운동인데 그 중에 예배가 가장 근본입니다. 이 언약의 피로 드리는 이 예배 안에 우리 인생 축복의 모든 근본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이 드리는 십일조는 전부 레위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이 하나님 눈에 가장 중요한 이 예배에 전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용서하심과 그리고 진노가 임하지 않음이 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다른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의 1/10 은 레위지파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파가 십일조를 하는 것에는 핑계할 거리가 원천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눈에 보이는 이런 땅은 없고 전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땅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산업의 땅이 다른 지파들에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는 당연한 것이며 본래 내 것도 아니었습니다. 레위지파가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수고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그들의 땅을 농사하여 그들의 몫을 돌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일조 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헌금입니다. 다시 한 번 영적인 눈을 뜨고 실행에 옮기므로 진노가 떠나가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1.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1) 인간과 세상을 통틀어서 나 외에 다른 존재가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고 내가 지금도 모든 것을 운행하며 모든 결론도 내 손안에 있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빛도 내 것이요 어둠도 내 것이며 평안도 내게 있고 환난도 내게 있다고 하십니다. 빛 되는 구원도 내 안에 있고 어둠이 되는 사단도 내 손에 있으며 평안이든 환난이든 네 인생의 모든 일들이 전부 내 손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2)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언약이 되면 세상과 인생을 그냥 그 자리서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6절은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십니다.
3)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지만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 그들과 상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핏대를 세우고 발광을 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이 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의 은혜 안에 있고 그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에게는 이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것이 내게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가 됩니다.

4) 오늘 본문 1절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분은 페르시아를 일으킨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고 도와 준 왕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태어나기 약 200년 전의 기록인데 그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5) 사44:28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 그는 내 목자인데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6) 아직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가지도 않았고 예루살렘도 성전도 예전 그대로 서 있었는데도 이런 예언들을 하니 유다 왕이 좋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 모든 것이 파괴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회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 여기에 고레스라는 이방 나라의 왕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고레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며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절은 하나님이 그를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놋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풀어줄 것이라고 하셨다. 3절 큰 재물을 주어서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8) 4-5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는 너의 이름을 부르고 네게 칭호를 주고 내가 네 띠를 동이고 이 모든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내 목자라, 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 내가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칭호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꺾은 당대 최고의 나라였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결정적인 일을 실행한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도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에 대한 모든 예언이 그대로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신자들의 역사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10)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 절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절대가 되어야 하며 시대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언약이 된 사람들에게는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11) 그들은 반드시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정복했고 모든 위기는 무너지고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살리고 사단의 머리는 깨는 인생을 살았고 항상 그 시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과 내 마음이 통하면 우리도 다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12)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을 지속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만들고 훈련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13) 이러는 중에 말씀이 들어와서 절대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오늘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도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었고 그 말씀은 아무리 방해를 하려고 해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마디가 내게 절대 언약이 되면 모든 것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